

러 전문가 “北 공격기 빌려 우크라 전쟁에 쓰자”

북, 지난달 공군 창설 80주년 기념 행사서 Su-25 장착 미사일 공개
독일산 장거리 공대지 ‘타우러스’와 유사... 정밀유도탄 사용 가능
블라디미르 흐루스탈레프 “비유도 로켓보다 정확... 전쟁 시 활용”

러시아의 군사분석가가 북한의 수호 아-25(Su-25) 공격기를 빌려서 우크라이나전에 사용하자는 아이디어를 공개로 내놨다고 미국의 군사 전문 온라인매체 ‘디펜스 블로그’가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군수산업과 핵무기에 정통한 러시아 전문가 블라디미르 흐루스탈레프는 북한 공군 창설 80주년 기념 행사에서 공개된 무기 배열을 언급하며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이 행사를 개최했으며, 행사 이후에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

당시 북한 공군은 Su-25 공격기에 독일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 KEPD 350과 유사한 외형의 미사일을 장착했다.

흐루스탈레프는 북한 최초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이 비(非)유도 로켓보다 사거리가 더 길고 정확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전시한 무기 조합을 이용하면 접촉선 상의 표적과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위치한 표적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며 방공 체계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표적 무력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항공기에 대한 위협을 줄일 수 있

다는 것이다. 흐루스탈레프는 러시아가 Su-25를 북한으로부터 임차해 전투에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 선택지라고 주장하면서, 전투용 항공기 임차와 외국 조종사를 타국 공군에 일시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확립된 관행이며 그에 따른 보상과 보험 체계도 잘 갖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와 북한이 이런 합의를 체결할 경우 양국이 모두 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입장에서 위험이 크지 않으리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방공망 작동 반경 밖에서 정밀유도무기를 사용하면 조종사의 위험 노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 대가로 북한은 재정적 보상, 전투 경험, 조종사 비행 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항공기 기체 정비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흐루스탈레프는 만약 북한군의 Su-25가 전투 중 손실될 경우 러시아가 자체 보유 중인 Su-25 전투기를 이전해줌으로써 보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으로부터 Su-25 전투기를 빌려서 운용 대수를 늘리고, 비유도 로켓 대신 정밀유도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로 인해 타격 대상을 늘릴 수 있으며,



1 북한 공군 창설 80주년 기념행사가 지난달 28일 갈마비행장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30일 보도했다. TV는 ‘북한판 타우러스’로 추정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전투기, 무인기, 공중통제기 등을 공개했다. 2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북한 공군 창설 80주년 기념행사에서 전투기 수호이(SU)-25 등에 장착된 형태로 처음 포착된 미사일(노란색 네모 안).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독일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와 외형이 비슷하다. 조선중앙TV·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연료 사용 효율, 기지 수용 능력, 예비 부품 물류 체계도 개선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흐루스탈레프는 북한이 개발해 Su-25에 탑재한 신형 순항 미사일에 대한 분석을 소개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Su-25 한 대에 이 미사일 두 발을 장착할 수 있다.

사거리는 100~150km로 추정되며 어찌면 250~300km에 이를 수도 있다.

흐루스탈레프는 또 이란의 가엠-114를 닮은 소형 유도 미사일들을 거론하면서, 이 미사일들의 유도 비행 사거리가 10km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인기를 표적 지시 장치로 활용해 레이저 유도 무기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며, 비교 사례로 소련 말기인 1986

년에 배치된 크라스노폴 레이저 유도 포탄을 들었다.

그는 또 이중 플랫폼간 호환이 가능한 레이저 표적 지시 기술이 1980년대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공군에서 사용됐으며 1991년부터 전투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흐루스탈레프는 또한 이란이 가엠-114 미사일에 ‘일단 쏜 후엔 잊어도 되는’(fire-and-forget) 유도 기능, 즉 미사일이 일단 표적을 포착하면 발사 후 자체적으로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기능을 추가한 변종을 개발했다면서, 민감한 군사 분야에서 이란과 수십 년간 상호협력해 온 북한도 유사한 시스템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비유도 폭탄에 장착하기 위

한 러시아제 유도 키트가 북한 Su-25 전투기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도 모둘이 장착된 활공 폭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통해 북한 Su-25 전투기가 전통적인 로켓 공격에 그치지 않고 유도형 FAB-500급 탄약을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흐루스탈레프의 이런 아이디어 제안은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Su-25 기종 현대화 계획에 따른 ‘Su-25SM3’의 효과성에 관한 의구심이 자국 내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고 디펜스 블로그는 전했다.

이 매체의 설명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투 경험을 통해 Su-25SM3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기종이 정밀유도무기 운용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으며, 밀집된 현대식 방공망이 구축된 환경에서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점진적인 항공전자 장비 업그레이드를 통한 추가 현대화가 현재의 작전 및 산업 환경 하에서는 실현 불가능함이 입증됐으며, 현대전장 요구사항에 대한 Su-25SM3의 적응성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디펜스 블로그는 전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후 광범위한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해 사실상 동맹관계를 과시했다. 연합뉴스



29일 테헤란 거리 시위. EPA=연합뉴스

이란 화폐가치 사상 최저 폭락... 시위 나선 상인들

이란에서 서방 제재 속에 경제난이 이어지면서 화폐 가치가 사상 최저로 폭락했다. 이 여파로 중앙은행 총재가 사퇴했고, 가뜰이나 고물가에 시달려온 주민들은 거리로 뛰어나가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규탄 시위를 벌였다.

AP로이터 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란 리알화 환율은 28일(현지 시간) 1달러당 142만 리알까지 치솟은 데

28일 기준 환율 달러당 142만 리알... 중앙은행 총재는 사퇴
식료품 값 72% 폭등 살인 물가에 테헤란 등 전국 항의 집회

이어 29일에도 달러당 139만 리알로 고공 행진했다. 이는 리알화 가치가 사상 최저를 기록한 것이다.

전년 동기 리알화 환율은 달러당 82만 달러였다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가 출범하면서 서방의 대이란 제재 압박이 거세진 여파로 올해 4월 달러당 100만 리알을 돌파하며 화폐가치가 곤두박질쳤다.

2015년 이란과 미국 등 서방 간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가 타결됐

을 때 달러당 3만2000리알 정도였던 것에 비교하면 약 10년 만에 화폐 가치가 44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한 셈이다.

달러당 환율이 오르는 것은 그만큼 화폐 가치가 내려간다는 뜻이다.

이 여파로 모하마드 레자 파르진 중앙은행 총재가 사퇴했다.

그는 2022년 12월부터 중앙은행 수장으로 일했는데, 취임 당시 달러당 43만 리알

이던 환율이 3년 만에 몇배로 치솟게 된 것이다.

안그래도 경제난 속 고물가에 시달려온 주민들은 29일 수도 테헤란을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 거리로 뛰어나가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들 시위대는 “정부가 옹호하는 환율 시장에 즉각 개입하고, 투명한 경제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다.

김소형 원방 좋은당黨

국내산 원료로 만든 건강한 여주진액, 정성껏 담았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국내산 유기농 여주 100%

인증번호: 제 13100551 호

인증서
인증구분: 유기농산물

유통기한: 2023.9.5 - 2024.8.4

매일! 챙기는 한 포의 루틴!
중·장년층에게도 꼭 맞는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위한 작은 습관

유기농 여주 (국내산)

중·장년이라면 하루 한 포!
김소형 원방 좋은당 (80ml X30포)
일체의 화학 첨가물을 없이 100% 천연재료 사용. HACCP 인증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제조원: (주)엔트리 / 경상남도 양산시 외산1길 30 유통전문판매원: (주)윗이랑 /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62길 1 남신빌딩 4층

생활 활력의 시작!
김소형 원방 좋은당으로 함께하세요!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
김소형 원방 좋은당으로 느껴보세요!

김소형 원방 좋은당 여주진액은 신뢰할 수 있는 국내산 여주에서 유래한 유기농 여주만을 100% 담았습니다.

드시고 싶은 다양한 음식들,
김소형 원방 좋은당 여주진액
하루 한 포면 모두 OK!
그 외에 여주와 궁합이 잘 맞는 9가지 원료를 함유!

돼지감자 (국내산)

바나바 (국내산)

인진쑥, 감초, 적약, 생강, 이모초, 영지, 대추, 숙지황, 흑마늘

매일 한 포, 활기찬 하루의 시작!

100% 국내산 유기농 여주, 돼지감자, 구지뽕, 바나바를 조화롭게 배합

신중하게 선별한 원료를 조화롭게 배합하고, 세심한 과정을 거쳐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김소형 한의원(원장)

김소형 원방 좋은당과 함께하시면 좋은 분들!

균형 잡힌 식습관을 챙기고 싶은 분 / 달콤한 음식을 즐기시는 분 / 회식이 잦은 직장인 / 한식을 즐기시는 분 / 활동량이 적은 부모님 / 건강한 하루 루틴을 만들고 싶은 모든 분들

1박스 59,800원	▶ 49,800원
2박스 99,600원	▶ 79,800원
4박스 199,200원	▶ 148,000원
8박스 398,400원	▶ 269,000원

행사기간: 2025년 12월 31일 까지

1588-3398

농협: 301-0253-2226-11 주식회사 윗이랑
무료배송 | 신용카드 | 무이자 할부혜택